



28일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대규모 개발로 인한 문제 지적해야”

한라일보 어제 8월 독자권익위원회 정례회의 최근 보도된 이슈 집중기획 보도 방안 등 주문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문성숙)는 28일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8월 정례회의를 열어 최근 지면을 통해 보도된 이슈를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사회문제 등에 대한 집중기획 보도 방안 등을 주문했다.

김정환 위원장은 “요즘 우울하고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 독자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될 정도”라며 “사회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밝고 희망을 주는 기사도 균형 있게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승훈 위원장은 “서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돼 문화예술의 섬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관련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명찬 위원장은 “제주도가 도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하수도 요금은 35%, 상수도 요금은 5~7%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생긴 문제의 원인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언론에서 지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만석 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해 안전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담론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 제주다움에 대한 담론들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광인 위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마약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경찰 수사인력은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철 위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착기업이나 토착민이 운영하는 식당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경은 위원장은 “요즘 직장인들은 대출이자를 갚느라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인본이 민생 문

제에 관한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석현 위원장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사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홍진숙 위원장은 “현재 에일 새별오름 동쪽에 국제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외국보다는 제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위원장은 “도내 각 마을 내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인 주민들의 움직임도 기사화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보도 대신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집중 취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화 위원장은 “신문은 인터넷이나 방송 뉴스와 달리 현실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해 지역이 미래 제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성준기자

김영연군 과학올림피아드 국대 후보



제주과학고등학교(교장 고영림)는 2학년 재학 중인 김영연(사진) 학생이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후보로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된 김영연 학생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일정을 함께한다.

제주출신 송정익씨 예술대전 대상



제주출신 송정익(67·사진)씨가 지난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37회 예술대전 시상식에서 한문 서예 추사체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송씨는 제주 성산고를 나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부 해외정책과장으로 근무를 마치고, 대령으로 예편했다.

이번 전국 공모전에는 영향력 있는 다수의 작가들을 포함해 약 1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송씨는 국방부 재직시 연목회에서 활동하며 서예 작품으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예문인화 교육을 이수하고, 서예문인화 전문가자격 인증서를 취득했다.

문정수 제주어 시집 ‘느 울영 나 울영...’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이사장을 지낸 문정수(사진)씨가 제주어 시집을 냈다.

도서출판 국보에서 나온 이번 시집은 ‘느 울영 나 울영 못 울영’이란 제목을 달았다. 이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란 뜻이다.

수록된 시는 100편으로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그려냈다. 문씨는 “제주어 보전에 일조하려는 의욕으로 써온 시”라며 “제주어 확대 보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노동업기술원에서 36년 공무원 생활을 마쳤던 문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하는 등 서예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철순 기념 ‘서예와 제주어시집’을 열었다.

뉴제주로타리클럽 도두 해안정화활동



국제로타리 3661지구 뉴제주로타리클럽(회장 양방규)은 지난 26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두해안가에서 해안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등정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 참석



◇송석연 제주대학교 총장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관계자 격려
◇김태엽 서귀포시부시장 28일 지역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와의 자매결연 교류행사 간담회에 참석해 양 지회간 지속적 교류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



주민 불편 애로사항 청취
◇현창훈 남원읍장 28일부터 지역내 17개 마을을 방문해 각 마을의 현안사항, 숙원사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주민 불편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역 예찰
◇강현수 대륜동장 지난 27일 직원들과 함께 관내 집중호우 취약지역을 예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을 당부.



당근제주협·무배추제주협 임원 선출

당근제주협의회와 무배추제주협의회는 27일 농협 제주본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18년 사업결과, 2019년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을 심의·의결했다.

당근제주협의회는 회장 윤 민 구좌농협 조합장, 부회장 오종규 김녕농협 조합장·강석보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감사 고철민 표선농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무배추제주협의회는 회장 강석보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부회장 윤 민 구좌농협 조합장·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감사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을 각각 선임했다.

알림

출산장려 캠페인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출산축하 코너’를 선보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장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든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장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편집부 ☎750-2251)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제주 편백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일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